

고양시, '치유농업 분야 최우수 기관상' 수상

치유타발 조성·자원순환형 토양개량 등의 성과로 치유농업 선도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농촌자원분야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해 치유농업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평가 기준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진흥사업 추진 성과와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는 것으로, 고양시는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촌자원 활용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고양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치유농업을 핵심 정책으로 발탁해 제도 구축부터 현장 적용, 과학적 효과 검증까지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왔다.

특히 학교 치유타발 조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고양시청사

운영, 의료·학계와 협력 연구를 통해 시민의 정서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 포스코이앤씨와 협력해 커피박 등 폐자원을 활용한 자

원순환형 토양개량제 'RE:CO 소일'을 보급하는 등 ESG형 치유농업 모델을 구축해 환경관련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고양시는 국립암센터, 일산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울·스트레스 감소 등 실질적인 치유 효과를 입증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고양시가 치유농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치유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향후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도입과 연구 확대를 통해 치유농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com

전남도, 봄철 산불 예방 총력

불법 소각·임산물 채취 등 집중 점검

전라남도는 봄철 산불 위험 증가에 대응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영농부산물·생활쓰레기·농업폐기물 불법 소각 ▲산림내 흡연이나 화기 사용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이다.

특히 3월 한 달간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관할 산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상복구 계고 기간은 1차 15일, 2차 7일로 운영되며, 기한에 이행하지 않으면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인력이 유형·시기별로 집중 실시한다.

또한 드론·산불감시카메라(CCTV)·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온라인상 불법행위 조장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방송, 현수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불을 피우

거나 불을 가지고 입산한 경우 200만 원 이하 ▲흡연이나 담배꽂초 투기 70만 원 이하 ▲화기·인화물질 소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봄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소각을 하지 말아달라"며 "산림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추진 사안인 만큼 위반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아 기자
mida0210@naver.com



▲불법행위 드론단속 사진

섬비엔날레 조직위, 유관기관과 4자 업무협약 체결

D-365 앞두고 기관 간 협력체계 본격 가동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효원)는 '제1회 섬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일 대전5동 회의실에서 충남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진), 충남콘텐츠진흥원(원장 김곡미),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지사장 심종용)와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최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섬비엔날레 추진 동력을 본격화하고, 문화예술·관광·콘텐츠 분야의 연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섬비엔날레와 연계한 ▲주민참여 예술교육 ▲지역 상생협력 사업 ▲관광 연계 프로그램 ▲홍보 콘텐츠 제작 ▲공동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기관별 역할도 명확히 나뉜다. 조직위는 행사 종합기획과 총괄 조정을 맡고,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역예술단체 연계, 관광 연계사업 협력을 담당한다.

충남콘텐츠진흥원은 홍보영상 및 아카이브 영상 제작,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콘텐츠 분야 협력

을 추진하며,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는 관광상품 개발, 공동 홍보 마케팅, 관광 네트워크 연계 등을 지원한다.

한편 국내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제1회 섬비엔날레는

2027년 4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충남 보령의 원산도와 고대도를 무대로, 섬이 지닌 자연·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예술로 확장하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com



▲유관기관과 4자업무협약체결(보령시청제공)

보령시, 36억 원 투입 '조림·숲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기후 대응 위한 1160ha 규모 조림·숲가꾸기 사업 실시

보령시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2026년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총 1,160ha 규모이며, 36억 8,400만 원을 투입한다. 조림 사업 159ha에는 13억 6,400만 원, 숲가꾸기 사업 1,001ha에는 23억 7,760만 원을 각각 투입한다.

조림 사업은 편백나무와 낙엽송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

을 중심으로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 등을 추진한다.



숲가꾸기 사업은 풀베기와 덩굴 제거, 어린나무 및 큰나무 가꾸기, 산불 예방 숲가꾸기 등을 통해 산림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보령시산림조합과 협력해 기상 여건과 민원 등을 고려하고 산주 동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원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선진지 벤치마킹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선진 농정 모델 발굴을 위해 실시한 충청권 선진지 벤치마킹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벤치마킹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선진 지자체의 행정 경험을 원주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동행해 실효성 있는 농촌 재생 정책 방향

을 함께 모색했다.

방문단은 27일 청주시 미원산골마을을 방문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 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를 확인한 데 이어, 괴산군청을 방문해 농업정책과 실무진과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이후 방문단은 괴산

군 연풍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실제 사업 적용 사례를 면밀히 살폈다.

전날인 26일에는 부여군 장암면의 스마트팜 업체를 견학하고, 은산면 나령리 축사 부지 정비 현장을 방문해 부여군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아산시, 상반기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 실시

"5천 원으로 접종 가능" 광견병 백신 지원 확대

아산시가 오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휴일 제외) 관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동물등록을 마친 생후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며, 700마리 분량의 백신을 선착순 공급할 예정이다. 접종은 아산시 소재 지정 동물병원 11곳에서 진행된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접종 부담을 덜기 위해 백신 약품비 전

액과 접종비 일부(10,000원)를 지원하고, 보호자는 마리당 5,000원을 부담하면 접종이 가능하다.

장은숙 축산과장은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반려동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도매시장 거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매·입찰
품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공개적·경쟁적 거래를 통하여 수급사정을 반영한 가격에 낙찰



정가매매·수의매매
출하자와 구매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가격, 물량 등)을 기초로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거래를 주관



전자거래(상·물 분리거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면 물건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송



예약거래
도매시장법인과 상의하여 미리 예약거래 (3일, 7일, 한달, 시즌별 등)

회원법인명단